FX Market Daily

2026-09-21

전일동향

엔화 급반등에...1,385.50원에 마감

18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82.20(15:30 기준)에서 보합 1,382.2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
환율은 달러 강세를 반영해 한 때 1,390원을 웃돌았으나 일본은행(BOJ)의 레이트체크(Rate check, 외환당국이 시장 참가자에게 현재 거래 가능한 환율 수준을 문의하는 것) 소식에 엔화가 급반등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해 1,385.5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0.5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81.48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82.20	1390.20	1379.70	1385.50	1383.80
엔화	882.84	887.33	876.33	881.48	-
유로화	1581.22	1593.36	1579.75	1588.99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24	-1.99	-5.68	-13.22
결제환율(수입)	-0.04	-0.91	-3.86	-9.7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엔화 강세에...1,38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83.30, 15:30 기준) 대비 3.95원 상승한 1,386.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엔화 강세 동조화와 수출업체 네고 물량 경계에 제한적 하락 전망한다. 지난주 BOJ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 9명 중 2명이 인상에 반대하는 등 향후 추가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엔화 약세가 이어졌으나, 이후 일본 당국의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화가 급반등했다. 이러한 가운데 일본 금융시장이 23일까지 연휴에 들어간 틈을 타 실제 개입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나, 엔화가 추가로 강세를 보일 경우 원화도 이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. 또한 우리나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이 연휴 전 네고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도 존재해 금일 환율 하방 압력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다만, 수입업체 결제와 해외주식투자를 위한 환전 등 실수요 매수세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80.00 ~ 1391.5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4486.32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95원↑
	■ 美 다우지수 : 51682.64, -95.4p(-0.18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71.13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315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